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Fukushima NOW

Vol.11 (2019년 11월 발행)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재해 복구를 향한 활동과 국제교류·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 후쿠시마현의 '지금'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습니다.
※번역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Voices from Fukushima

그레이존 속의 다양성으로부터 보이는 것 양 희숙 (한국 서울 출신 · 후쿠시마시 거주)

양 희숙씨는 후쿠시마시에서 단기대학과 일본어학교 강사, 외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을 위한 볼런티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으로 일본에 와서 생활한 지 올해로 20년. 결혼과 출산·육아, 지진 등 여러 경험을 해 온 양 희숙씨에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뷰 날짜: 2019년 10월 1일)



-일본유학을 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학 전 일본과 거래하는 한국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와 패션 등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학 전부터 일본에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재일조선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식민지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해 온 지식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생활했는지,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등을 연구했습니다.

-납편 분의 일 관계로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타인의 출신국 등을 신경 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나라의 차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일문제도 이슈화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러한 사실에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처럼

보이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현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귀환곤란구역, 피난지시 해제 준비구역, 그리고 페로 진행 작업 중인 원전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들이 모여서 후쿠시마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도 후쿠시마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과 생각은 같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림으로써 더욱 많은 공감과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생각과 상황들이 얽혀 있는 것이 후쿠시마의 현재라는 것이네요.

흑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무수의 그레이존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전한지 위험한지, 맞는지 틀린지 등 양극으로 나누는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존을 분석해 보면 다른 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에 한하지 않고 나라 간의 분쟁, 나아가서는 왕따 문제 등, 모든 일에 있어서 불가결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외국인, 일본인들과 함께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만들지 않고 또한 나를 맞추기만 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점을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프리카 북으로 시민을 하나로 (후쿠시마시)

‘음식과 음악으로 세계를 이어주는 월드 챌리티 마르쉐’가 국제협력단체인 카니만보 주최로 9월 8일(일) 후쿠시마역 앞 서쪽 출구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잡화와 가정요리 부스들이 출전한 가운데, 모잔빅의 뮤지션 나잔씨와 아프리카의 민족 복인 잔베의 연주 등이 음악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아프리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나잔씨의 노래가 특히 좋았습니다”라며 음악과 요리를 만끽했습니다.



국제교류원 레포트!

올림픽을 앞두고 구급훈련 (니혼마츠시)

9월 11일 (수) 외국인 관광객 대응을 위한 구급훈련이 스카이피아 아다타라에서 열려, 윈즈 유키 당협회 국제교류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니혼마츠시의 구급훈련에서는, 구급대원이 다국어 음성 번역 어플리 ‘보이스토라’를 이용해 부상지역의 외국인을 대응했습니다. 저는 긴급 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에 관심을 가지고 견학했습니다. 내년 여름 도쿄 2020 올림픽·파라림픽의 개최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심과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회에서 국제교류! (타무라시)

10월 6일(일), 타무라시 주최로 타무라시 국제교류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은 외국인과 일본인 총 200여명이 참가, 오오타마코로가시와 코이노보리를 바탕으로 만들어 릴레이를 하거나 타마 넣기 등의 경기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운동회는 처음입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국적과 세대의 시민들이 모인 아주 즐거운 운동회였습니다.



다국어 부흥정보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후쿠시마현 부흥 상황의 최신 데이터와 식품 안전·안심을 위한 활동,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분들의 활동 등을 10개국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태국어)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

영어·중국어·일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

목요일 10:00~14:00

※네번째주와 다섯번째주는 미리 예약 해 주세요

☎024-524-1316 ✉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들려 주십시오. 또한 알고 싶은 정보나 Voices from Fukushima에 등록 가능한 후쿠시마현 거주외국 출신자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인 또는 추천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 024-524-1315 ☎ 024-521-8308

✉ info@worldvillage.org

🌐 http://www.worldvillage.org

Facebook https://www.facebook.com/fiainfo

Twitter https://twitter.com/fia_info